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김 미 지
(서울대학교)

❖ 국문초록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아나키즘 사상이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즘 운동뿐만 아니라 지식 사상계 그리고 문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이후 한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각 방면에서 사상적 지침이 되었던 크로포트킨 저작의 수용사를 번역 양상과 번역 경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은 오스기 사카에 등 일본의 선구적인 번역 작업들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조선어로 번역되면서 다양한 참조와 변용 그리고 자기화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청년에게 호소함’과 같은 크로포트킨의 저작은 불온 선전물 팸플릿으로 검열과 단속의 대상이었지만 여러 경로로 수입되고 또 번역되어 20년대 선전문 번역의 존재 양상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에 신문 잡지 미디어에 소개된 크로포트킨에 관한 글들은 초기의 번역들이 그러하듯이 대부분 일본어 중역이거나 초역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 쪽의 자료들이 참조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라는 번역의 매개와 영향관계를 암시한다. 이후 1930년대에는 사상 운동의 차원에서보다는 문학자와 비평가로서 크로포트킨을 전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문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요한 통로이자 논거로서 크로포트킨이 자리하게 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은 대부분 일본과 중국을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크로포트킨이 받아들여진 맥락 안에 놓이면서도 조선어로 번역하기라는 과제를 둘러싼 고투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주제어 : 1920년대 번역, 오스기 사카에, 선전문 번역, 검열, 중역, 식민지 번역, 러시아 문학 수용

I. 들어가며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P. A. 크로포트킨은 한국의 아나키즘(무정부주의)¹⁾, 사회주의 사상사와 운동사 그리고 문학사에서도 그 어떤 사상가보다(어쩌면 마르크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0세기 초 한국과 동아시아의 지식계에서 그의 사상과 저작들은 무정부주의 뿐만 아니라 지리학, 생물학(진화론), 러시아 문학사, 프랑스 혁명사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충격과 호응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나키즘은 곧 크로포트킨주의’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지적²⁾에서도 나타나듯이, 20세기 초 조선(이는 일본과 중국의 경우도 비슷한데)에서 그가 쓴 일종의 ‘선전문’인 ‘청년에게 호소함(1880)’³⁾과 저서 『상호부조론』(1902) 등이 미친 영향은 아나키즘 사상이나 운동의 차원을 넘어 매우 널리 확산되었다. 뒤에 상술하겠지만 1920년대 내내 ‘청년에게 호소함’(청년에게 訴함 또는 청년에게 告함)⁴⁾은 일문과 조선어문 등 여러 텍스트들이 게릴라처럼 등장하여 청년들

1) 무정부주의라는 최초의 역어는 ‘아나키즘’의 사상과 실천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많고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라 근래에는 ‘무정부주의’라는 술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학술적 술어로 ‘安那其主義[안나치주의]’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2) 조남현, 「한국근대문학의 아나키즘 체험」, 『한국문화』 12호, 1991.

3) 크로포트킨이 불어로 쓴 ‘Aux Jeunes Gens’는 당대에 ‘청년에게 소함(호소함)’, ‘청년에게 고향’, ‘청년에게 호소하노라’ 등등으로 불렸고, 2014년 홍세화에 의해 ‘청년에게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특정한 글 제목의 경우 그 원제를 살리고 일반 명칭으로는 ‘청년에게 호소함’을 사용한다.

속을 파고들었고, 여러 작가들의 글 속에서도 크로포트킨에게 깊은 감화를 받았다는 증언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근대 초기 조선의 아나키즘에 관한 연구는 신채호, 이회영 등 특정 인물들에 대한 연구와 독립운동사, 공산주의운동사의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이어져 오다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기존에 ‘비주류’였던 그들의 사상, 조직운동의 전모를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연구가 축적이 되어 왔다.⁴⁾ 특히 근래 들어 국제적으로 중흥무진하며 탈국가적 연대를 모색했던 재일, 재중 아나키스트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당대의 지식계와 사상운동계에서 크로포트킨이 특별히 환영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크로포트킨의 사상이 가진 대안적 성격과 시대적 배경을 꼽는다. 즉 다윈의 진화론을 인류 사회에 적용시킨 사회진화론이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기 쉽다는 점을 간파한 청년 지식인들의 반발 그리고 1920년대 일본에서 본격화한 ‘개조’론의 유입을 배경으로 하여,⁵⁾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진화론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의 가치가 매력적인 사상적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한편 문학 연구 방면에서도 무정부주의 문예론자로 꼽히는 김화산이나 권구현 또는 시인 황석우와 이육사 등이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⁶⁾ 사실상 ‘근대 초기 신문학의 전위들은

4) 오장환, 『한국아나키즘 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지식산업사, 2001;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박환, 『식민지 시대 한인아나키즘 운동사』, 선인, 2005.

5) 일본에서 무정부주의 사상의 궤적과 흐름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수용을 둘러싼 여러 내막들을 자세히 고찰한 것으로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 -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2012가 있다. 한편 상호부조론과 동아시아의 크로포트킨 수용을 비교한 것으로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을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 39, 2005를 참조할 수 있다.

6) 개별적인 연구들 외에 아나키즘 문학 연구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김택호의 『한국 근대 아나키즘문학, 낯선 저항』, 월인, 2009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신채호, 권구현과 같이 기존의 익히 알려진 아나키스트 문인 외에 이향, 허문일 그리고 아나키스트 문예지 『문예광』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그밖에 최서해, 박화성, 신동엽, 김용택 등을 아나키즘과 공동체라는 시각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대체로 아나키즘을 포화하고 있었다⁷⁾는 주장처럼 아나키즘을 매우 광범위하게 스며든 당대의 사상적 기저로서 상정하고 있는 시각들도 있다. ‘종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전위적 예술은 자연스럽게 아나키즘적이 된다⁸⁾’는 것도 하나의 진실일 터이지만, 문학과 사상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실증하기란 어려운 일인 만큼 당대 문인들의 아나키즘에 대한 이해를 단지 ‘소박한 유토피아주의’ 또는 ‘막연한 사상’으로 치부하게 될 소지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전위적인 문학의 여러 실험들에 나타난 아나키즘적인 성격은 충분히 논의될 만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아나키즘에 대한 범박한 적용이나 과도한 해석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근래에 제기된 허균의 『홍길동전』에 대한 아나키즘적 분석과 그에 대한 논란은 아나키즘을 문학적 분석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진 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⁹⁾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문학과 크로포트킨주의 또는 아나키즘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두 연구는 매우 시사적이다. 방민호¹⁰⁾와 서동수¹¹⁾의 연구가 그것인데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두 논문은, 소위 모더니스트들의 모임으로 칭해지는 <구인회>에 가담하여 매우 낮은 문학 세계를 선보이다 폐결핵으로 요절한 작가 김유정을 크로포트킨과 연관시키는 낮은 시도를 보여준다. 전자는 김유정이 처한 운명과 정신적 상황이 문학으로 승화되는 과정

7)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시와 그 성격」, 『우리말글』 21호, 2001.

8) 김윤식, 「1920년대 한국아나키즘문학론비판-김화산의 경우」, 『한국학보』 28호, 33쪽.

9) 2003년 8월에 열린 ‘한국아나키즘학회’ 학술대회 ‘문학의 저항성과 아나키즘’에서 허균의 『홍길동전』에 나타난 ‘국가에 대한 거부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제목이 우리 아나키즘의 역사에 단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서강대 석사논문으로 강은숙, 「『홍길동전』에 나타난 아나키즘 사상 : 완관본을 중심으로」가 제출되기도 했다. 아나키즘 사상의 문학적 적용 문제와 난점은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홍길동전을 아나키즘으로 읽는 이상의 방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10) 방민호, 「김유정, 이상, 크로포트킨」, 『한국현대문학연구』 44집, 2014.

11) 서동수, 「김유정 문학의 유토피아 공동체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스토리앤이미지텔링』 9호, 2015.

에서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예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꾀하는 과정에서 크로포트킨주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김유정의 크로포트킨 사상에 대한 공감과 이해라는 근거 위에서 살피고 있으며,¹²⁾ 후자는 김유정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사상적 토대로 삼아 그의 수필에서 ‘고향’으로 표현되는 ‘공동체적 유토피아’와 ‘사랑’의 이상을 문학적으로 실현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근대문학의 사상적 탐색과 실천에 대한 열린 시각과 함께 문학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문학사적 양대 사조로 대립시켜 왔던 오랜 진영론적 시각이나 아나키즘문학을 계급문학운동의 하위 범주 또는 주변적 존재로 논의해 왔던 기존의 선입견을 거부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대 초기 문학적 전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사상적 실천적 복잡성과 모순점 그리고 상호 관련성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글은 크로포트킨 사상을 아나키즘 조직운동이나 사회주의 비평론을 넘어서서 한국문학과 새로이 접속시키려는 최근의 시도들과 같은 지반에서 출발한다. 단 여기에서 본고의 관심은 아나키즘 사상 및 운동의 차원이나 현실에 대한 상상적 구축물로서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당대적 조건에 관한 것이다. 즉 당대인들이 아나키즘 또는 크로포트킨과 만나는 장면들을 특정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조건 및 환경과 관련짓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 ‘한국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든 크로포트킨의 글들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번역되고 유통되었는가’, ‘한국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 동아시아에서 크로포트킨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 참조되었는가’와 같은 문제에 답을 찾아 나가면서, 근대 초기 크로포트킨을 만난 다양한 방식과 맥락을 입체적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식민지 조선에

12) 특히 이 논문은 김유정뿐만 아니라 김유정과 같은 병을 앓다 비슷한 시기 요절한 작가 이상 역시 자본주의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사유의 망명 과정에서 무정부주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구인회’의 개별 작가들의 사상적 연관성 그리고 1930년대 중후반 작가들의 사상적 지평도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의의가 있다.

서 크로포트킨을 비롯한 해외 서적의 번역과 수용에는 일본과 중국의 영향이 지배적이지만 그를 벗어나는 특수한 실천의 양상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나아가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문학, 언어, 출판을 둘러싼 보다 복합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근대 초기 조선의 통언어적인(translinguistic) 언어 상황에서 조선에서 서양이 매개된 방식은 ‘식민지 번역=일본어 중역’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선 곳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펼쳐졌던 크로포트킨 번역 및 수용의 다양한 국면들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초기 국가를 넘어서는 연대와 상상 그리고 문학적 실천들이 모색될 수 있었던 토대와 기반을 추적하는 작업들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청년에게 호소함’을 통해 본 1920년대 선전문 번역의 실천들

1927년 18세의 열혈 문학청년 박태원은 당시 조선의 어떤 작품도 자신에게는 실망과 불만 따라서 슬픔을 느끼게 할 뿐이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眞과 熱’의 문학은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하노라’와 같은 것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 글을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譯의 팜플렛’으로 읽었으며, 동경에 있는 절친한 벗이 보내 주어 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1920년대 후반 식민지 수도 경성에서 시와 소설로 데뷔하여 소위 ‘모더니스트’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 월북한 뒤 ‘혁명작가’가 되어 북한에서 사망한 1986년까지,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실로 드라마틱한 작품 여정을 보여 준 박태원의 문학적 연대기 그 첫머리에 놓인 것이 곧 크로포트킨과

13) 박태원, 「시문잡감」, 『조선문단』, 1927. 1 고보 재학 시절 학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서양문학과 일본문학에 심취했던 청년기의 박태원은 이 글에서 일본 시인 미쓰이시 가쓰고로(三石勝五郎), 그리고 톨스토이와 크로포트킨의 글이야말로 자신이 진정 바라는 글이라는 심경을 피력한다. 독서 기록을 매우 풍부하게 남겨 놓은 박태원의 독서 편력과 문학 세계의 관계는 김미지, 「식민지 작가 박태원의 외국문학 체험과 ‘조선어’의 발견」, 『대동문화연구』 70집, 2011 참조.

‘청년에게 호소하노라’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사실 박태원뿐만 아니라 벽초 홍명희와 임화, 시인 신동엽과 고은 등의 회고에서도 크로포트킨의 글에 큰 감화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작가 박태원은 평생의 글쓰기를 통해 그가 바라마지 않았던 ‘청년에게 호소하노라’와 같은 작품을 쓰는 데 성공했을까.¹⁵⁾ 이에 대한 답을 하기란 쉽지 않고 또 이 글의 논의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그보다 이 글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청년에게 호소함’을 비롯한 크로포트킨 저작을 어떤 경로로 또 어떤 맥락에서 접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다. ‘청년에게 호소함’ 및 크로포트킨의 파급력이 결코 적지 않았고 꽤 오랫동안 영향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찰은 거의 없는 데, 이는 문화사나 수용사의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검열 당국에서는 ‘청년에게 호소함’을 ‘사회주의 선동’의 불온 선전물로 다루어 왔지만, 시인 주요한이 위의 박태원과 비슷한 시기에 쓴바, “작품의 동기와 목적 및 필연적 효과에 따라 선전문이고 아님을 판단한다면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이라던가 스토우부인의 ‘앵클토크스캐빈’가튼 것이 나의 말하는 의미의 선전문”¹⁶⁾이라는 입장에서 보듯, 누군가에게 크로포트킨은 예술가이자 세계문학의 통로이면서 조선문학(문화)의 돌파구이기도 했다.

일본의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에가 번역한 ‘青年に訴ふ’는 1920년대 초에 공식적으로 몇 차례 출간되었는데 그 이전 이미 1907년 이를 『평민신문』(3.8~3.23)에 역재한 적이 있고(이 일로 오스기는 신문지 조례 위반으로 기소 수감된다) 1922년 잡지 『노동운동』에도 실린 바 있다. 오스기 사카에의 번역에 대해 그 자신의 증언을 참고하여 좀 더 부연하자면, 그 역문으로 인해 기소가 된 것은 마지막 한 장이 질서문란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는 것, 그 일로 원저자 크로포트킨이 직접 코토쿠 슈스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14) 임화, 「어떤 청년의 참회」, 『문장』 13호, 1940.2.

15) 박태원의 여러 작품들 안에서 크로포트킨의 ‘흔적’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문학 사상의 맥락에서 놓는 것은 좀 더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다. 박태원 소설의 아나키즘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권은의 선구적인 시도(『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8)가 있었다.

16) 주요한, 「이월창작별건 (3)」, 『동아일보』, 1927.2.23

저서 중 가장 온건한 것으로 인해 젊은 동지가 자유를 희생당했다'는 말을 전했다는 것, 그 후 3, 4년 뒤 자신의 번역이 미국에 있는 동지의 단체인 사회혁명당에서 출판되어 그것이 기백부가 일본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¹⁷⁾ 그러니까 1927년 즈음의 박태원이 접한 '일역 팜플렛'이란 1907년의 평민신문 연재본 또는 나중에 주간 잡지 『노동운동』(1922)에 실린 번역문이나 20년대에 출간된 단행본 수록본 그도 아니라면 미국에서 역으로 흘러 들어온 팜플렛 등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오스기 사카에의 일역본이 접한 선구적인 위상은 지식계 내부에서는 꽤 견고했겠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찍이 1920년부터 조선에서도 '청년에게 호소함' 또는 '청년에게 고함'을 번역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모든 번역들이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모두 일정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처음의 시도는 1920년 5월 22일 김명진(金明鎭)의 번역 기고문으로 『동아일보』에 1회 게재된 「青年에게 告함」이다. 오스기 사카에의 번역본과 비교하면 명백히 오스기 번역의 중역임을 알 수 있는데, 전체 11개의 부분으로 된 오스기의 번역문에서 앞의 1, 2 부분을 번역해 놓고 있다. 김명진이 중역한 번역본에는 간혹 어휘를 변경한 부분(예컨대 徒弟를 弟子로, 身分을 門閥로, 愛他主義를 他愛主義로 등등)이나 탈각된 문장이 보이지만 거의 모든 통사 구조와 어휘가 오스기의 것과 동일하다. 단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으로 다음과 같다.

ここにおいて諸君は、社会主義を了解するであろう。そしてさらに詳細にこれを知りたくなるであろう。そして、もし愛他主義という言葉が諸君にとって無意義なものでないならば、また自然科学の厳重な帰納法を社会問題の研究の上に応用してゆくならば、諸君はついにわれわれの戦列に加わって、われわれとともに革命のために働く人となるであろう¹⁸⁾。

17) クロボトキン作, 『青年に訴ふ』, 大杉栄訳, 労働運動社, 1922 서문

18) 『大杉栄・伊藤野枝選集第1巻: クロボトキン研究』, 黒色戦線社, 1986

만일 타에주의라하는 언어가 제군에게 전혀 무의미한것이안이면 또 제군이 자연과학의 엄밀한 귀납법을 사회문제연구상에 응용하여가면 제군은 맛참내 사회주의의 이상과 중지에 동정할지며 사회개혁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¹⁹⁾

위에 인용한 조선어 역문에서 오스기 번역의 앞 두 문장은 탈락되었고, 또한 ‘우리의 전열에 참가하고, 우리와 함께 혁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사회주의의 이상과 중지에 동정할지며 사회개혁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될 것’으로 바뀌어 있다. 물론 ‘戰列’, ‘革命’과 같은 역어의 선택 역시 전적으로 오스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²⁰⁾(이 부분은 이후 단행본으로 공식 출판되면서는 완전히 삭제되었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살리는 대신 ‘전열’, ‘혁명’을 포기한 것이 1920년 조선문 번역의 한 타협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채호가 「낭객의 신년만필」의 그 유명한 문장(“아아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하노라’란 논문의 세례를 받자 이글이 가장 病에 맞는 藥方이 될가한다.”)에서 크로포트킨의 이 글을 언급한 것이 1925년이었는데, 이미 1920년 김명진의 번역 이후로 ‘청년에게 호소함’이라는 글이 매우 다양한 방식 그리고 다양한 버전으로 조선에 등장하였음이 확인된다. 당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들만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金明鎭 譯, 「青年에게 告함」, 『동아일보』, 1920. 5. 22 (일부)
- 2) 無我生, 「青年에게 訴함」, 『공제』 7, 8호, 1921. 4, 6²¹⁾ (일부)
- 3) 이성태 역, 「青年에게 訴함」, 『신생활』 임시호, 1922. 6 (전문 삭제)
- 4) 『青年에게 訴함』, 사상운동사 謹讀部(동경 일월회) 발행, 1925. 8 (소책자)

19) 金明鎭 譯, 「青年에게 告함(크로포트킨)」, 『동아일보』, 1920.5.22.

20) 최근에 프랑스어 원문을 홍세화가 번역하여 출간된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 문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당신도 사회 변혁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매우 ‘온건’하게 표현되어 있다. (크로포트킨, 『청년에게 고함』, 홍세화 역, 낮은산, 2014, 37쪽)

21) 김택호, 오장환에 의하면 역자인 무아생은 재일 유학생이었던 유진희라고 한다.

- 5) 谷泉 抄譯, 「先驅者の 하소연」, 『동아일보』, 1925. 10. 21~11. 14 (일부)
- 6) 조병기, 「청년에게 訴함」 (1928) (팜플렛)
- 7) 「청년에게 호소함」, 『奪還(탈환)』(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 창간호, 1928. 6²²⁾

앞서 밝혔듯이 1) 김명진의 번역은 전문 가운데 앞의 일부분을 신문지상에 1회 게재한 것이고 오스기의 번역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옮겨놓았다. 2) 무아생의 번역은 이성태²³⁾에 의하면 전문의 절반 정도를 번역한 것이다. 3)은 크로포트킨 관련 저술을 여러 편 남긴 이성태의 번역인데 총 10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이 검열 삭제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4)는 동경에서 조직된 일월회의 기관지 사상운동사에서 발행한 팜플렛 형식의 소책자로, 『조선일보』의 신간 소개(1925. 8. 6)에는 ‘조선어로 번역되야 책자로서 出世하기는 실로 처음’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5)는 총 6회에 걸쳐 신문지상에 연재가 되었는데 검열을 피하고자 한 흔적이 역력한 번역으로, 제목을 「선구자의 하소연」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인 ‘크로포트킨’의 이름은 전혀 등장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국 6회(1925. 11. 14)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검열 삭제되어 신문지상에서 인쇄된 활자의 흔적만 남은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또한 역자로 되어 있는 ‘谷泉’이라는 인물의 정체도 묘연하여 그 글이 번역되고 게재된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하여 그동안 크로포트킨 관련 연구에서 곡천의 번역문이 누락되어 있었던 듯하다. 주목할 것은 곡천의 역문이 앞의 김명진의 번역이나 오스기 사카에의 번역과는 매우 다른 면모를 보인다는 점이다. 두 조선어 번역문의 첫머리만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내가 지금 말하려하는 것은 청년제군에게다 그럼으로 노인들-물론 그는 頭와 心과의 노인들-은 여차한 글은 더저두고 공연히 안총이라도 피곤하게하

22) 박환, 앞의 책, 96쪽에 따르면 이을규에 의해 조선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전문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23) 이성태, 「크로포트킨학설연구」, 『신생활』, 1922.7.

지아니하는 것이 나힐 것이다.

나는 제군을 십팔세나 이십세 나에 근한 자로 제자 혹은 학업을 필하고 장차 실생활에 들어가기를 비롯한 자로 가정한다. 세간만사가 모다 제군에게 주입되려한다. 제군은 모든 미신에서 탈출한 두뇌를 가졌다. 목사들의 잔소리만코 무한히 느린 설법의 수지직기를 들으러가지 아니한다. (중략) 곧 나는 제군을 극히 진실한 맘을 가진 자라한다 그리고 그러하닛가 나는 제군에게 말하려한다. (김명진 역)

나는 이제 이글한편으로써 나의 가장 경애하는 청년제군에게 하소연하노니 심장에 붉은피가 뛰는 젊은이는 다 나와 나의 하소함을 들리라 나는 제군을 이십세내외되는 청년으로써 어떠한 전문학교나 실업학교를 마치고 장차 실생활에 나아가려는 사람으로 가정하노라 그리하여 ‘독잡이’를 무서워하거나 또는 목사의 설교를 맹신하는 못난이가 아니오 적어도 모든 미신을 척파한 명쾌한 두뇌의 소유자로서 (...) 극히 진지한 성격을 가진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말을 하는 것이다. (谷泉 抄譯)

김명진의 번역이 대체로 오스기 번역의 축자역에 가깝다면 곡천의 번역은 ‘抄譯’이라는 말에서 보듯 발췌, 운문, 의역이 매우 심한 대신 가독성이 훨씬 높아진 매우 유려한 문장을 보여준다. 이는 5회의 연재분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문에 없는 첨가와 탈락 또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번역이 참고한 원문의 정체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오스기의 번역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적이다. 오스기는 1921년과 1922년에 ‘청년에게 호소함’을 공식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적게는 수십자에서 많게는 수백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들을 군데군데 삭제 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²⁴⁾ 곡천의 역문은 분명 오스기의 번역본을 참고로 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24) 大杉榮는 1921년 발간한 자신의 論集『正義を求める心』 말미에 부록으로 「青年に訴ふ」(クロポトキン作)를 수록한 바 있고, 1922년에는 労働運動社에서 『青年に訴ふ』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단행본 발간 이전에 주간지 『労働運動』에도 수록하였다. 앞의 단행본 수록본은 둘 다 동일한 부분들이 삭제되어 출간되었다. 1920년대의 오스기가 전문을 포기하고 검열을 통한 공식 출간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労働運動』지에 실린 역문은 오스기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무사했다’고 한다.

완전히 재창조되었다고 할 만한 부분들을 두드러지게 노출하고 있다. 예컨대 좀 길게 인용한 다음과 같은 부분은 곡천의 번역이 참조와 변용 그리고 의역과 자국어화와 같은 술어들을 완전히 넘어선 지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さらに他の例をあげよう。一人の男がパン屋の前をうろうろしていたかと思うと、やがて一片のパンをかっぱらって逃げ出して捕えられた。彼は失業労働者で、彼の家族の人々は、数日来なんにも食わないのだという。パン屋の主人は、この男を赦してやるように頼んだが、警察官はそれを聞かないで、ついにその男は起訴せられ、六カ月の懲役に処せられた。

これが神聖なる裁判の命ずるところである。こうした裁判が毎日行われているのを見て、諸君の良心はかくのごとき現社会に対して、反抗しようとしないうだろうか。

また、幼ない頃から他人に虐待せられて、かつて同情という言葉をも知らずに育って来た男が、一円の金が欲しさにその隣りの人を殺した。

諸君はこの男に対して、どんな法律を適用しようとするか。彼は罪人というよりはむしろ狂人だ。そして、こんな狂人ができたのは社会の罪じゃないか。これを知って諸君は、なおこの男を二十年の懲役、あるいは死刑にしようとするか。

また酷遇に堪えないで ……………(九十字削除)……………

もし諸君が、単に教えられたことを繰り返すのみでなく、それを推理し分析して、その真の起原を掩うている偽りの雲を掃い去ったなら、諸君は必ず ……………(六百字削除)²⁵⁾……………

다시 예를 다른 곳에서 어더보자 백설이 척여나 싸힌 무섭게도 추운날 수삼 일동안 한조각의 ‘빵’도 먹지 못한 칠팔인의 어린 가족을 둔 실업노동자한 사람이 남의집 ‘빵’ 한 개를 훔치다가 순행하던 경관에게 잡히바되여 십구 년이란 긴세월을 철창속에서 송영하였다는 비참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만 ‘유-고’의 ‘짚, 밭짚’ 이야기에서만 어더들을수잇는 소설적기담이 아니니

25) クロボトキン, 「青年に訴ふ」, 『正義を求める心: 大杉栄論集』, アルス, 1921, pp.370~371.

거의날마다 발생하는 이따위 현상을 스스로 목도한 제군은 이에 대하여
엇더한 생각을 가지겠는가?

신성하다는 재판의 이러한 잔인악독한 처치가 쉴새없이 제군의 감정을 충
동시킬때에 제군의 양심은 이러한 사회제도에 대하여 불가튼 반항심을懷
持하지 안할수업스리라

엇지이뿐이라! 날마다 신문의 지면을 변화하게 장식하여주는 ‘오전짜리 살
인사건’ ‘일원짜리 권총강도’ 등은 확실히 제군에게 유력한 일종의 격서가
될지니 이러한 모든 악현상의 발생이 오로지 현사회제도의 불합리에 기인
하는 것임을 관찰한 현명한 제군은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대한 법률의 적용
이 그들에게 회오의 기회를 주기는 고사하고 도로혀 거역악화하게하는 것
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한 제군은 의사의 왕진가방가튼 제군의 서류가방을
즉각내내던지고 오늘날 다만 소수특권 계급의 보루에 불과한 현사회의
법률을 근본으로부터 개혁하여써 만인의 행복의 원천이 될만한 새롭은
‘법’을 세우려는 활기있는 새이상을 포지하게 될것이며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제군도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의 도당이
되지안을수업슬것임을 또한 예언하노라.²⁶⁾

‘한 남자가 빵을 훔친 죄로 기소되어 6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다’는 단순한
문장은 곡천의 역문에서 “‘빵’ 한 개를 훔치다가 순행하던 경관에게 잡힌바되
여 십구년이란 긴세월을 철창속에서 송영하였다는 비참한 이야기는 다만 ‘유
고’의 ‘짚, 발짚’이야기에서만 어더들을수잇는 소설적기담이 아니니”와 같이
창작의 수준으로 바뀌어 있다.²⁷⁾ 사실 프랑스어 원전에서는 빵이 아니라 정육
점의 고기를 훔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고기(프랑스어)에서
빵(일본어)으로 그리고 나아가 장발장(조선어)의 비유로 이어지는 번역들의
방향 조정은 단지 중역에 따른 오역 또는 지나친 자국어화의 문제이기보다는
번역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문학적 또는 시대적 감각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해

26) 谷泉 抄譯, 「先驅者의 하소연」, 『동아일보』, 1925.11.1.

27) 크로포트킨의 저 노동자의 사례는 곧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기
도 한데,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된 1921년판 서적의 해당 페이지에 누군가가 유려한
손글씨로 ‘Jean Valjean Les Miserables’이라고 써놓은 것은 우연일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²⁸⁾

결과적으로 보면 곡천은 오스기의 삭제되지 않은 원래의 역문(『평민신문』 또는 『노동운동』의 연재본)과 단행본으로 정식 출간되면서 대거 삭제된 번역 문 모두를 참조하되, 삭제된 부분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살리거나 축약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넘어선 다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프랑스어 원문이나, 독일어, 중국어²⁹⁾ 번역본을 참고했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이러한 ‘독단’과 ‘자유’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³⁰⁾ 크로포트킨과 ‘청년에게 호소함’이라는 글 자체가 가진 매력과 위력 그리고 ‘불온 선전문’이라는 레테르가 붙은 사정도 하나의 이유일 터인데, 무엇보다 근대 초기 번역의 역사를 돌아 볼 때 이러한 자의적 번역을 지금과 같이 오역이나 의역 또는 번역의 윤리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³¹⁾ 그보다는 중역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많은 번역들 속에는 사실 중역이라는 조건을 의식하는(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무의식의 작동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이 이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되

28) 이는 독일에서 루터의 시적이고 역사적이고 격렬하고 교육적인 어조의 번역이 종교적 확산과 ‘새로운 종교감’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한 괴테의 다음과 같은 말 즉 “원문과 경쟁하려는 비평적 번역은 사실 몇몇 식자들의 관심거리일 뿐”이라는 지적을 떠오르게 한다.(앙트완 베르만,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윤성우 이항 역, 철학과현실사, 2009, 55쪽)

29) 중국에서는 처음 ‘告少年’으로 번역되었다가 나중에 ‘告青年’이라는 제목이 등장한다. 중국의 크로포트킨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소설가 바진은 1920년 15세의 나이에 ‘告少年’ 중역본을 읽고 깊은 감화를 받은 뒤 크로포트킨 소개와 번역 등에 매진한 바 있고, 1938년에는 ‘告青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30) 심지어 5회 연재분 마지막에는 원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목 즉 “제군의 각득한 진리를 더욱 천명하기에 쉬지안코 노력하는 제군의 책상머리에는 ‘맑스’의 ‘유물사관’ ‘공산당선언’가튼 서적이 일부일 싸히게될것까지를 나는 아노라”와 같은 크로포트킨의 호소문이 아닌 번역자 자신의 호소문으로 보이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러한 거침없음이 결국 6회분을 완전 검열 삭제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짐작된다.

3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신지연은 『글쓰기라는 거울』(소명, 2007, 36~7쪽)에서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와 번역의 관계를 물으면서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현실대로 존재하는 ‘나쁜 번역’만이 번역의 유일한 존재 양식이었고, ‘열등한 독자들’을 위해 삭제와 왜곡이 이루어지는 번역 양식 자체가 계몽의 성격을 띤다”고 서술한다.

는 것은 아닐까? 또한 이는 중역이면서 중역이 아닌, 번안과 의역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며 원문의 충실성과 자국어화라는 이분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1920년대 번역의 어떤 차원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표면에서 사라진 저자와 미궁 속의 번역자, ‘하소연’이라는 엉뚱한 제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문장들, 『동아일보』라는 일간지 게재 등 여러 면에서 검열당국과의 숭바꼭질을 시도하고자 하는 은밀한 문화적 실험까지도 엿보게 한다. 즉 ‘청년에게 호소함’은 당대의 다양한 ‘판본’들이 검열이라는 조건과 함께 얽혀 있는 상호텍스트의 문제이다. 이성태 번역의 전문 삭제와 해외에서 은밀히 유입된 번역문들 사이에서 ‘선구자의 하소연’이 가장 공식적인 방식으로 비교적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 곡천의 번역 ‘선구자의 하소연’은 동경에서 완역되어 국내로 흘러들어온(혹은 흘러들어오는 길이 막힌) 사상운동사(일월회)의 팜플렛 책자 ‘청년에게 訴함’과 등장한 시기가 불과 두어 달 차이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번역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만약 곡천의 역문이 동경에서 발간된 조선어 역문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동경의 조선인 역자들이 오스기 사카에 또는 김명진에 의해 최초로 행해진 기존 번역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물론 두 역문이 서로 무관한 지점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6)의 경우는 실체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건 기사와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록에만 남아 있다.³²⁾ 단 고등보통학교 교사였던 조병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에게 호소함’ 등의 ‘불온’ 저작물을 지방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번역 배포하려는 시도들이 더 많이 있었을 가능성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³³⁾ 7)은 4)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번역 발간되어 조선으로

32) 1928년 9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창원공립보통학교 교사인 조병기가 ‘청년에게 소함’을 조선문으로 번역등사하여 졸업생에게 배부하여 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고 하며, 1928년 차압 삭제 및 불허가 출판물 개황에서도 조병기 발행의 조선문 단행본 ‘청년에게 소함’을 차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出版警察概況 - 差押 削除 및 不許可 出版物 記事要旨』, 『朝鮮出版警察月報』 第2號, 1928. 10. 13)

33) 당대 지방 각지의 청년 및 유학생 강연회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을 강연하려다가 금지되거나 기소되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유입되었을 다종다기한 팜플렛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발간되어 조선으로 유입된 불온 출판물은 단속 취체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1926년에는 “동경 일월회에서 발행하는 팜플레트 ‘청년에게 호소함’ 일백칠십권을 가진 박제호를 검거”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며³⁴⁾, 1929년 작성된 ‘不許可 差押 및 削除 出版物’ 가운데에는 독일어문으로 된 ‘청년에게 호소함’이 포함되어 있다.³⁵⁾ 이는 저 앞머리에 놓인 오스기의 일역 팜플렛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본과 중국 또 그 이외의 다른 여러 경로들을 통해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이 유입되고 또 각지에서 자발적인 방식으로 유통되었음을(적어도 그러한 시도가 계속되었음을) 뜻한다.

어쩌면 당시에 ‘청년에게 호소함’과 같은 ‘불온 선전문’은 부분적으로 또는 산발적이고 은밀하게 즉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길이었을 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1920년대 초 ‘합법적인 출판물’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 오스기 사카에 번역본이 난도질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오스기 사카에는 단행본 발간 시 핵심적인 문장들이 대거 삭제된 것에 대해 ‘별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서문에서 밝히며 ‘타협’한 바 있는데, 1920년대 조선과 일본에서 ‘청년에게 호소함’이라는 텍스트가 놓인 이러한 차이는 독립운동과 사상운동 전반에 걸친 ‘검열’ 특히 ‘식민지 검열’에 대한 대응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다시 말하면 제국과 식민지에서 외래 사상의 수용 과정과 서적의 번역을 둘러싼 차이는 ‘일찍이 1907년 오스기가 번역한 ‘청년에게 호소함’이 조선에서는 약 20년이 지난 뒤에야 번역되었다’와 같은 범박한 ‘시차(時差)’론이나, ‘선전의 제국과 후발의 식민지’ 또는 ‘제국의 직역과 식민지의 중역’과 같은 단순화한 공식을 뛰어 넘는다는

34) 『동아일보』, 1926.5.20.

35) 「出版警察概況 - 不許可 差押 및 削除 出版物 記事要旨」, 『朝鮮出版警察月報』 第6號, 1929.2.12.

36) 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대동문화연구』 79집, 2012에 따르면 1920년대 일제의 검열이 외지(식민지)의 특수사정론에 입각하여 점차 구체화, 체계화된 데 반해 1936년 경 부터는 제국의 표준으로서 보편화한 검열 기준이 만들어졌다. 조선의 경우 대만보다 더 세분되고 복잡한 검열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일본의 금지 표준은 대만보다 조선에서 더 많이 변용되었다고 한다.

의미이다.

‘청년에게 호소함’은 조선에서 철저히 1920년대적 텍스트였다. 그 시대에 검열과 단속을 뚫고 게릴라처럼 파고들었다가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에서 그러하고, 근대 초기 조선에서 번역이라는 행위와 문화가 가지는 여러 국면들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박진영의 지적대로 또 오랜 연구를 통해 실증한대로 1920년대는 한국 번역의 역사에서 전성기였다. 즉 다시 말해서 이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어 번역이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는 점³⁷⁾을 의미하는데, 이는 외래의 것을 중개하거나 소개하는 방식 또는 그것을 자기화하는 방식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다음 장에서는 ‘청년에게 호소함’ 이후 1920~30년대 크로포트킨의 저작들이 번역되고 수용되는 양상들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I. 크로포트킨 번역의 동아시아적 조건과 중국이라는 매개

크로포트킨이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크로포트킨의 저작이 소개, 번역, 연구되기 시작한 1920년대 전후의 일이었다. 일본에서 프루동-바쿠닌-크로포트킨으로 이어지는 무정부주의의 계보와 이론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19세기 말의 사회주의 수용기 그리고 러일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였으나, 본격적으로 크로포트킨이 알려지고 대중 일반으로까지 관심이 확대된 것은 모리토(森戶) 동경제대 교수의 필화 사건이 일어난 1920년 이후로 본다.³⁸⁾ 크로포트킨의 주요 저서들은 192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계속해서 반복 출간되고 재번역 되었는데,

37) 박진영,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소명출판, 2013, 336쪽 참조. 저자는 이 책에서 1920년대 상반기의 중요성은 동아시아 근대와 번역이 유례없이 역동적으로 맞부딪혔다는 데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38) 박양신, 앞의 글 참조. 조선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모리토 교수 사건은 동경제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모리토 다쓰오(森戶振男)가 1920년 1월 『경제학연구』에 「크로포트킨의 사회사상 연구」를 발표한 뒤 신문지법 위반으로 기소 및 면직된 사건이다.

일례로 오스기 사카에 번역의 『상호부조론』은 1917년 초간된 이래 1920년, 1924년 등 여러 차례 재발간되었고 오스기 사후 1927년에는 재번역될 정도로 큰 베스트셀러였다. 『크로포트킨 자서전: 일혁명가의 회상』 역시 1918년 三浦関造에 의해 『革命の巷より』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뒤 오스기 사카에의 재번역으로 1920년 이후 몇 차례 재출간되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최초로 크로포트킨을 사상과 운동, 문학의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확산시킬 임무를 안은 1920년대 대부분의 논자들은 (많은 수의 외국 저작들이 대체로 그러했듯이) 압도적인 일본의 출판물들과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고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이자 저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출발선의 가장 앞부분에 놓인 이성태의 글 ‘크로포트킨학 설연구’(신생활, 1922. 7)는 특히 주목을 요한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성태 글에 나타난 크로포트킨 이해의 단편성과 미숙성을 주로 지적하면서도, 공산주의 사상 소개에 주력했던 잡지 『신생활』을 통해 그가 지속적으로 크로포트킨을 소개하고자 했던 노력에 의미부여를 하곤 했다.³⁹⁾ 그런데 그보다 본고의 문제의식에서 볼 때 눈길을 끄는 것은 이성태가 “몇가지 서적을 통해 그의 사상을 알 따름”이라며 필자로서 자신의 한계와 곤란을 토로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 ‘몇가지’밖에 안대는 서적을 일고서 외람하게 (삼사백혈이상의 대책자로서만 십책이 갓잡고 그 외에 소책자가 이삼십이나 되는데, ...) 그의 학설이라는 제목이나마 쓴 것이 너무 죄송하고 붓그럽습니다. (...) 물론 이 글의 내용에 일어서는 여러 선배의 연구 비평한 가운데서 민흔 참고와 어더한 부분은 표절한 곳도 업지안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여러분압헤 내여노흐려는 나도 나려니와 그나마 아즉 우리네에게는 맑쓰나 레닌에게 관한 厯造 혹은 再造의 문서일망정 유행하는 모양이나 (...) 어대까지든지 정치적이나 기만적이나 강권적 또는 집권적 이 아닌 우리 크로포트킨에 대하야는 비록 재조의 문서-르지라도 아즉 보지못하엿습니다.⁴⁰⁾

39) 박양신 앞의 글, 오장환 앞의 책.

40) 이성태, 「크로포트킨 학설연구」, 『신생활』, 1922.7, 28~29쪽.

조선에서 크로포트킨과 그의 사상에 대해 거의 최초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장으로 갈무리를 시도한 이성태는 비록 그 노력이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20년대 초반 번역과 외래 사상 및 서적의 수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던진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원전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독자 또는 번역자 중심으로 행해진 출처 없는 발췌와 베끼기가 횡행했던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표절할 부분도 없지 않음’을 고백한다든지 ‘참고서적이 너무 어렵게 되어 요령이 불분명하거나 문장이 난잡한 점’에 양해를 구하는 등의 필자의 태도는 지나치게 솔직하게 여겨지는데, 이미 오스기의 번역서나 일본의 다양한 크로포트킨 관련 저작들을 접했을 『신생활』의 인텔리 독자들과 운동가들을 지극히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솔직한 고백을 불러온 조건들과 문화적 상황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구체적인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몽똥그리거나 모호하게 처리하면서도 ‘표절 가능성’을 실토한 것은 외래 서적과 일본어 번역서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대를 앞둔 어떤 서막 또는 전야의 풍경처럼 보이는 것이다.⁴¹⁾ 그렇다면 우선 20년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수용이 보여주는 특징적 양상들을 수용의 문화적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에게 호소함’을 둘러싼 여러 사태들은 선전문과 뼈라가 판을 치던 1920년대에 조선에서 불법 간행물과 합법적 문화운동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 돌출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즉 자문화와 타문화의 관계맺기나 충실성과 같은 번역의 문제보다는 검열과 관계된 문화적 실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면이 강하다. 그런데 20년대 중반 이후 크로포트킨과 그의 저서를 소개하는 양상들은 몇 가지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가 이미 1920년대 초(1922년)에 참고한 크로포트킨 관련 서적이 “대책자라면 십책이 갓잡고 그 외에 소책자가 이삼십이나 된다”고 했듯이 실제로 조선의 운동가, 사상가, 문필가들은 그러한 책자들을 조선의 독자들에게 실어 나르고 중개하는 작업을 꽤 충실히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

41) 이 역시 일본의 서적들과 번역서들을 통해 학습된 것일 텐데 서양 및 일본 서적의 체계 즉 서문 쓰기와 출처표기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로 실행하기 시작한다.

먼저 20년대 초반에는 크로포트킨의 저작(일역본) 자체보다 오스기 사카에의 연구서인 『크로포트킨 연구』(アルス, 1920) 등 일본계 학술 서적이 주요한 또는 편리한 참조 대상이 되었던 반면⁴²⁾ 1920년대 후반부터는 『상호부조론』, 『빵의 쟁취』, 『전원, 공장, 제작소』와 같은 크로포트킨의 핵심 저작 자체에 대한 소개⁴³⁾가 나타나고 비평이나 논문의 인용 대상으로 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도입 초기에 주로 오스기 사카에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던 것은 번역서뿐만 아니라 『크로포트킨 연구』, 『정의를 구하는 마음』, 『오스기 사카에 전집』 등 그의 연구 성과와 저작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크로포트킨에 관한 수십 종에 달하는 1920년대의 일본 번역서 가운데 오스기 사카에의 번역은 단 몇 종에 그친다.⁴⁴⁾ 동아시아의 크로포트킨 수용에 있어서 오스기 사카에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은 곧 오스기 사카에로 통한다든가 조선의 크로포트킨 수용은 대부분 오스기 사카에를 참조했거나 경유했다고 보는 것은 일면의 진실에 머문다. 이 시기 식민지의 후발 주자들은 원전과 번역문 텍스트들의 홍수 앞에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과 나름의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에 좀 더 부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혹은 수학하는)

42) 최초로 『상호부조론』을 소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윤자영의 「상호부조론연구」(『아성』, 1921)도 이성태에 의하면 오스기의 『크로포트킨 연구』를 번역한 것이라고 하며, 『조선일보』에 1923년 게재된 「크로포트킨의 생물학적 사회관」 역시 오스기의 『크로포트킨 연구』를 抄譯했다고 표시되어 있다.

43) 일례로 방미애, 「크로포트킨의 교육관」, 『동광』 14, 1927. 6 은 『전원, 공장, 일간』의 終篇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서 초역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원호여적, 「현대인의 부」, 『동아일보』, 1929에서는 『빵의 약탈』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송정인, 「무정부주의의 도덕」, 『동아일보』, 1931과 「세계명저소개」 「전원, 공장, 제작소」, 『동아일보』, 1931은 각각 ‘代讀’이라는 형식과 ‘세계명저소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44) ピョートル・クロボトキン, 『相互扶助論：進化の一要素』, 大杉榮 訳, 春陽堂, 1917.

クロボトキン, 『革命家の思出：クロボトキン自叙傳』, 大杉榮 譯, 春陽堂, 1920.

クロボトキン, 『青年に訴ふ』, 大杉榮 訳, 労働運動社, 1922.

아나키스트들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북경과 상해를 무대로 중국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했던 유서(柳絮, 유기석) 등의 논문이 잡지 『동광』을 통해 다수 발표되었던 것이다. 루선의 「아큐정전」을 최초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서는 동시기에 잡지 『신민』에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나 러시아 혁명에 대한 글을 다수 게재한 바 있다. 중국 상해에서 유학을 했던 시인 주요한이 편집 발행인을 맡았던 『동광』은 주로 안창호(홍사단) 계열 인물들의 주요 발표 지면이었다는 점에서 유서의 글이 이 잡지에 다수 게재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양동우회가 상호부조론을 어떤 식으로든 수용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지만⁴⁵⁾ 주요한 및 『동광』과 유서 사이의 ‘중국’이라는 매개가 더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26~27년 『동광』에 실린 크로포트킨 관련 글들은 다음의 네 편이 있다.

- 1) 류서, 「(학술연구) 크로포트킨의 문예관」, 『동광』 5, 1926
- 2) 류서 역, 「크로포트킨의 도덕관」, 『동광』 6, 1926. 10
- 3) 류서 역, 「(자연과학 강좌) 크로포트킨의 호조론개관」, 『동광』 10, 1927. 2
- 4) 方未艾, 「크로포트킨의 교육관」, 『동광』 14, 1927. 6

4)번의 역자 방미애(方未艾)란 1925년 중국에서 심용해, 유서, 정래동, 오납기가 주축이 되어 조직된 크로포트킨연구모임의 가명으로 알려져 있는데⁴⁶⁾ 그렇다면 위의 네 편의 글 모두가 중국에서 활동한 아나키스트 유학생에 의해 쓰인 것이 된다. 즉 일본을 통한 크로포트킨 수용과 번역의 경로와는 다른 또 하나의 수용과 유통의 통로를 이들을 통해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45) 이경훈, 「인체 실험과 성전 - 이광수의 『유정』, 『사랑』, 『육장기』에 대해」, 『동방학지』 117호, 2002, 218쪽. 이경훈은 ‘자조’와 ‘호조’가 수양운동의 표어로 제시된 바 있고 크로포트킨에 관한 류서의 글이 여러 차례 실린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수양동우회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서 ‘호조’의 개념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는 아나키즘이나 아나코-코뮤니즘과는 무관한 민족개조론의 전유양상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상투쟁 과정에서 아나키스트들을 축출해버린 뒤 ‘인류의 상호부조적 본능’이라는 전리품을 취한 것은 이광수 등 민족주의자였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손유경, 「아나키즘의 유산(遺産/流産)」,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2012 참조.

46) 오장환, 앞의 책, 142쪽.

로 이들의 장문의 번역문들은 중국어 번역본을 참고한 흔적을 역력히 노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1)의 경우 ‘학술연구’라는 명칭이 부기되어 있는데, ‘크로포트킨은 문학가가 아니다 그러나 ... 나는 장래에 그의 저작도 문학사상에 편입될 날이 있으리라고 믿는다’는 인상적인 예언으로 글의 서두가 시작된다. 크로포트킨의 예술론이나 문학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드러내는 글이지만 글의 대부분이 크로포트킨 저작을 초역(抄譯)하면서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이 유서의 글인지 유서가 다른 연구 논문 전체를 번역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목할 부분은 연구 및 번역의 출처와 관련한 기록이다. 이 글에는 크로포트킨의 ‘『露西亞文學上の理想과 現實』을 보면 그의 문학론의 대개를 알 수 있다’든지 ‘『露國文學史』 제8장 문예비평의론 몇 단을 보면 그의 의사를 알 수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 글이 기대고 있는 원저의 출처를 노출하고 있다. 그런데 크로포트킨이 러시아 문학에 관하여 쓴 저작은 *Ideals and Realities in Russian Literature*(1905)로 미국에서 행한 러시아문학에 관한 대중강연을 토대로 하여 영국 런던에서 영어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일본에서는 1920년 『露西亞文學講話』와 『露西亞文學の理想と現實』로 처음 완역되었고⁴⁷⁾ 1928년 크로포트킨 전집에서는 『ロシア文學・その理想と現實』로 번역되었다.⁴⁸⁾ 한편 중국에서는 1930년과 1931년 두 차례 이 책이 완역되어 단행본으로 나온 바 있는데 두 번역서의 제목은 모두 『俄國文學史』⁴⁹⁾였다. 유서의 위의 글이 발표된 것이 1926년이라는 점에서 1930년에 나온 중국의 단행본 번역서가 참조되었을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는 셈이지만, 이미 사회주의가 수용되던 초창기부터 중국의 지식계와 문학계에서 크로포트킨의 저 저작(중국어명 『俄国文学的理想与现实』)이 크게 유행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⁵⁰⁾ 중국 사상계와 문학계의 자장

47) 두 책 모두 역자와 서지사항이 馬場孤蝶 等訳, アルス, 1920으로 동일하여 제목만 바꾼 같은 책으로 짐작된다.

48) 『クロフトキン全集 9 ロシア文學・その理想と現實』, 新居格 訳, 春陽堂, 1928

49) 克鲁泡特金, 『俄國文學史』, 韩侍桁译, 上海:北新书局, 1930; 克鲁泡特金, 『俄國文學史』, 郭安仁译, 重庆:重庆书店, 1931

50) 林精华, 「苏俄文化之于二十世纪中国何以如此有魅力」, 『二十一世纪』网络版

안에서 활동하던 유서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1931년 중경에서 출간된 『俄國文學史』의 역자 郭安仁이 역자의 말(譯者的 note)에서 “1928년 전집 간행을 위해 일차로 번역을 했던 인출본을 수정하고 번역을 추가하여 출간”하게 되었으며, “역문의 근거는 런던에서 나온 영문본이지만 번역할 때 馬場孤蝶 등의 일역본을 참고했다”⁵¹⁾고 밝힌 바 있는 것에서 유추해 보면 유서가 저 글을 쓸 당시인 20년대 중국에서 크로포트킨 저작의 원본과 일역본이 폭넓게 참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20년 중국에서 『克鲁泡特金的思想』이라는 책이 발간(작자, 출판사 불명)되었고 그 책자 안에 「크로포트킨의 문학관」, 「크로포트킨의 예술관」과 같은 글들이 실려 있었으며 1921년 『동방잡지』에도 「크로포트킨의 예술관」이 게재되었다는 사실, 1920년대 초부터 중국의 『소설월보』 등의 잡지에 러시아문학과 크로포트킨 문학론에 대한 글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⁵²⁾ 등을 통해서 그 글의 출처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⁵³⁾

2)의 글은 유서의 번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크로포트킨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 아닌 연구논문의 번역임을 알 수 있으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국 문헌을 조사한 결과 일찍이 1917년 중국에 상호부조론을 소개한 바 있는⁵⁴⁾ 黄文山(凌霜 또는 兼生)이 1919년 『解放与改造』에 발표한 「克鲁泡特金的道德观」(크로포트킨의 도덕관)이라는 글을 번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2期, 2006.7.

51) 郭安仁, 「譯者的 note」, 克鲁泡特金, 『俄國文學史』, 重庆:重庆书店, 1931, p.xi

52) 1921년 9월 『小説月報』 12권의 호의 형식으로 『俄罗斯文学研究』가 발간되었는데, 周作人, 「文学上的俄国与中国」; 郑振铎, 「俄国文学史略」; 沈泽民, 「克鲁泡特金的俄国文学论」 등이 실렸다. (秦弓, 「五四时期俄罗斯文学翻译」, 『江苏行政学院学报』 5, 2005 참조)

53) 이 글들의 존재는 중국 학술 정보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원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54) 黄凌霜, 「竞争与互助」, 『自由录』 1集, 1917. 크로포트킨의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이 ‘互助(論)’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번역된 것은 李石曾이 파리에서 창간된 『新世纪』에 분재한 1908년의 일이었고, 黄凌霜이 ‘竞争与互助’라는 제목의 글을 『自由录』에 발표한 것이 1917년, 周佛海에 의해 최초 완역본이 나온 것이 1921년이였다. 李石曾 译, 「互助(进化之大原因)」/ 「互助论」, 『新世纪』, 31~51호, 1908.1.25~ 6.13 ; 周佛海 译, 『互助论』, 商务印书馆, 1921.12 참조.

그 일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克氏认为道德是由人类行为 趋乐避苦的念头生出来的.

우리의 행위는 모도 한 가지 단순한 동기- 趨樂避苦의 염두로 붙어 발생하는 것이다.

善惡观念则来自于人类 休戚相关 的 同情心. 由此决定无政府主义的 待人如己 道德原理.

「아나키즘」의 근본 원리는 곳 평등이다. 이 원리와 『待人如己』와는 서로 비슷하다.

他认为： 真理的发明家， 热心的革命家， 有着常人缺少的 胆量、美、善、情爱、真挚. 他们将为人们创造将来的道德.

크씨는 극력으로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예를 들면 진리의 발명가 열심의 혁명가 此種人 중에 유명 무명자로 결투장에 있는 자를 매우 칭찬 하였다. 우리인류의 진보는 모도 그들의 창조에 의한 것이다. 우리 평상 사람이 가장 결핍한 바는 곳 膽量, 美, 善, 真挚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다 있다.

위 인용문을 비교해 보면 유서의 글은 문장 상에서 약간의 변형은 보이지만 주요한 어휘나 개념(趨樂避苦, 待人如己, 胆量、美、善、情爱、真挚 등)에 있어서 黃文山的 글을 그대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3) 역시 전반적인 글의 체제나 어휘 등을 볼 때 중국 자료의 번역으로 추측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언급했던 『克鲁泡特金的思想』(1920)에 「互助論大綱」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에 앞서 1919년에는 「“互助论”的大意」⁵⁵⁾가 발표된 적이 있는 등, 1908년 『신세기』를 통해 『호조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중국에서 이 저작의 소개와 연구가 1920년 전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적어도 유서가 『동광』에 연재물과 같은 형식으로 발표한 몇 편의 글들이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저작을 소개하는 일련의 시리즈

55) 高一涵, 「“互助论”的大意」, 『新生活』, 第2卷第5号, 1919.9.15.

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앞의 「크로포트킨의 도덕관」에서 보듯 중국 자료를 번역하거나 참고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4)는 글의 서두에 “이 篇은 氏의 「田園, 공장, 일간」의 終篇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서 抄譯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크로포트킨이 영어로 저술한 *Fields, Factories and Workshops*를 지칭하는 것이다. 중문으로는 ‘田莊工廠和手作場’이라는 번역어가 보이는 등⁵⁶⁾ 일찍이 중국에도 소개가 되었고 1929년 『田園工場手工場』(汉南译, 上海自由书店)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일역본으로는 『田園·工場·仕事場』(中山啓 訳, 三田書房, 1920) 등이 있는데 1931년 『동아일보』의 ‘세계 명저 소개’란에 이 책이 소개될 때는 『전원, 공장, 제작소』로 제목을 번역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때 4)에서 일찍이 ‘Workshops’를 ‘일간’이라는 순우리말로 표기한 것이 이채로운 부분이다.

이상에서 중국 자료나 번역본을 저본으로 작성된 글들의 출처나 번역의 정황 및 서지적 참조점들을 가능한 한 실증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는데, 중국에서 프랑크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보다도 몇 발짝 앞서 크로포트킨이 소개 번역되었다는 점,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도 크로포트킨의 원저와 일역본이 함께 참조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조선문 번역이 놓인 통언어적인 맥락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비평가 크로포트킨’으로의 초점 이동과 30년대적 전유 양상

사실 크로포트킨 수용과 관련해서 20년대 말~30년대적인 현상으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크로포트킨이 문학 연구와 비평에 끼친 영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아나키스트이자 사상가로서 크로포트킨에 대한 관심과 추종은 2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대신 앞에서도 살펴 본 『러시아 문학의 이상과 현실』(1905)을 중심으로 크로포트킨이 인용되는 양상을 띠기

56) 「田莊工廠和手作場之要旨」, 『克鲁泡特金的思想』, 1920(작자, 출판사 미상). 중국에서는 그밖에 「田園、都市、作坊」, 「田地、工場和车间」 등의 제목으로 번역된다.

때문이다. 『러시아 문학의 이상과 현실』은 일본에서는 부분적으로 잡지에 게재되다가 1920년에 처음 완역되었다.⁵⁷⁾ 다음은 1920~30년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의 러시아문학 관련 저작을 참고하거나 인용한 글들이다.

- 1) 정명준, 「크로포트킨의 예술관」, 『여명』 창간호, 1925
- 2) 류서, 「크로포트킨의 문예관」, 『동광』 5, 1926
- 3) 이향, 「예술가로서의 크로포트킨 - ‘크로포트킨’ 칠주제에 제하야」, 『동아일보』, 1928. 2. 7~10
- 4) 함대훈, 「환멸기의 노문호 안톤 체홉 연구-작가생활 오십주년을 기념하야」, 『동아일보』, 1930. 3. 4~ 3. 19
- 5) 함대훈, 「투르게넵의 예술과 사상철학-그의 사후 오십년제에 제하야」, 『동아일보』, 1933. 8. 20,
- 6) 한식, 「문호 막심 골키의 문학사상의 공헌 위대한 작가 그의 부보를 듣고 (4) 암중모색에서 실천적 행동에」, 『동아일보』, 1936. 6. 25
- 7) 임화, 「조선적 비평의 정신」, 1936. 1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수록)
- 8) 크로포트킨, 「트르케넵 연구」, 『삼천리』 11-1, 1939. 1 (번역자 불명)

1)은 대구지역에서 발간된 문예지 『여명』에 실린 글로 크로포트킨의 예술론과 문학사가로서의 면모에 일찍이 주목한 글이다. 앞에서 살펴 본 2) 유서의 글은 이 책 가운데 마지막 부분 「문예비평」 특히 ‘톨스토이’의 문학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한편 3)의 필자 이향은 카프 내부의 사상투쟁 단계에서 김화산과 함께 축출된 아나키스트로, 카프 내부에서의 아나키즘

57) 일본에서 나온 크로포트킨의 문학사 또는 문예론 관련 번역서와 저작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クロポトキン, 「ゴーリキイ論」, 『露西亞現代作家叢書』第2卷, 佐藤出版部, 1920.
クロポトキン, 『露西亞文學講話』, 馬場孤蝶 等訳, アルス, 1920.
(クロポトキン, 『露西亞文學の理想と現實』, 馬場孤蝶 等訳, アルス, 1920)
加藤一夫, 『クロポトキン芸術論』, 春秋社, 1931 (春秋文庫 ; 第1部 第45)
『クロポトキン全集 9 ロシア文學・その理想と現實』, 新居格 訳, 春陽堂, 1928.
クロポトキン, 『ロシア文學講話 上, 下』, 伊藤整 訳, 改造社, 1939.
(クロポトキン, 『ロシア文學の理想と現實 上, 下』, 伊藤整 訳, 改造社, 1947)

논쟁을 염두에 둔 듯 크로포트킨이 ‘예술로 사회운동의 기관으로 사용코저 하지 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서아문학의 이상과 현실’의 한 대목을 인용한다.

“참으로 위대한 예술은 고상한 사상으로 특권자 외에 무력한 피압제자의 머리우에와 그들의 초가안에까지 透進하여 각 사람의 생활과 사상에 격려된다 - 이러한 예술은 참으로 需要된다”⁵⁸⁾

이항은 크로포트킨 7주기에 바친 전 5회에 걸친 이 글에서 ‘상호부조론’ 등에서 나타난 크로포트킨의 사상 전체가 인류애의 표현이며 크로포트킨을 ‘인류의 최고이상을 지시하는 예술가’⁵⁹⁾로 표현하고 있다. 4)와 5)는 동경외대 노어과를 졸업하고 해외문학과로 활동한 함대훈의 글로, 부분적으로 크로포트킨을 참조 인용한 글이다. 12회에 걸쳐 연재된 4)의 1회에서는 일역 크로포트킨 전집 9권(350-2항)⁶⁰⁾을 참조했다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다. 한편 5)에서는 “크로포트킨의 『노서아문학의 이상과 현실』 가운데 크로포트킨이 해부 비판한 육편의 소설이 투르게넵호의 일생애를 통하여 쓴 저작품중이 그 정확임을 동의”한다고 밝히며 그를 인용하고 있다. 6)을 쓴 한식(韓植)은 일본동경사범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경에서 사회주의 문예동인지 ‘제3전선’을 거쳐 카프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그는 고리키와 니체주의를 관련시키는 근래의 논의들을 반박하는 데에 고리키에 대한 크로포트킨의 분석(「고리키론」, 『러시아문학의 이상과 현실』)을 인용하고 있다.

한편 7)은 1934년 카프해산 이후 비평과 문학사 저술에 매진하던 시기의 임화가 쓴 글로, 20년대 중후반에서 30년대 초반까지 카프의 계급주의문학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조선 문예비평의 특수성(政論的 성질)과 관련하여 문학사적 인식을 보여주는 글이다.

58) 『동아일보』, 1928.2.8.

59) 『동아일보』, 1928.2.12.

60) 『ロシア文学・その理想と現実』(クロボトキン全集 9), 新居格 訳, 春陽堂, 1928.

크로포토킨은 그의 명저 『러시아 문학의 이상과 현실』 가운데서 ‘과거 50년 간 러시아에 있어서 정치사상이 그 표현의 주요 수로로 삼은 것이 문예비평이다’ ‘그 필연의 결과로서 러시아의 문예비평은 어느 외국에도 볼 수 없을 만한 발달과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중략) 저는 ‘크로포토킨’의 논법을 빌어 문예비평의 조선적 성격의 가장 중요한 점은 杜塞된 정치사상, 혹은 사회비평의 한 개의 放水路라는 점에서 찾고 싶습니다.⁶¹⁾

임화는 자신의 지난 비평활동을 포함한 조선 문예비평(계급주의 문학)이 정론성(政論性)에 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치적 특수성(사상적 杜塞)과 문예비평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오늘날의 비평은 정론성에의 편중이 아니라, 그 일반적 세계관상의 요구로써 사기의 미학, 문예과학을 관철시키는 유물론적 정신과학의 확립의 길 위에서’ 달성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즉 임화가 도달한 조선 근대 비평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전망은 크로포토킨을 경유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크로포토킨의 문학사적 업적들은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조선에서 고리키, 체홉, 투르게네프 등 러시아 문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통로이자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한편으로 유서, 이항, 임화의 경우에서 보듯 문학사와 비평사의 차원에서 사상적 지침으로서도 영향을 미쳤다. 즉 필자가 놓인 위치와 그가 기대 있는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른 방식의 인용과 재전유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들 각각의 실례들은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선동가이자 아나키스트로서의 크로포토킨으로부터 러시아 문학사가이자 예술가, 비평가로서의 크로포토킨으로의 관심 이동은 사상운동의 경색이라는 시대적 상황 앞에서 한중일이 모두 겪은 변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크로포토킨이 다른 어떤 사상운동가나 이론가들에 비해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고 영향을 미쳐 온 중대한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만큼 그간의 아나키스트로서의 크로포토킨 사상은 팔호 안에 묶인 채로 논문 작성과 연구를 위한 기술적인 참조점으로 쓰이게 될 개연성을 내포한 것이다. 8)에서 보듯이 1939년에 이르러서야 종합잡지 『삼천리』의 지면에 『러시아

61) 임화, 「조선적 비평의 정신」, 『문학의 논리』(1940), 서음출판사, 1989, 410쪽.

문학의 이상과 현실』 일부인 「트르케네프 연구」가 번역자 표기도 없이 조선 문으로 게재되었다는 점은 이미 사상운동의 완전한 폐색이라는 상황에서 크로포트킨을 번역하고 수용하는 행위에 정치적인 의미가 완전히 탈각되었음을 대변한다.

중국에서 최근 ‘크로포트킨이 현대 중국의 도스토예프스키 연구에 오랫동안 기본 논조와 연구 범주를 제공해 왔다.’⁶²⁾는 반성적 고찰이 나온 바 있는데, 이는 한국의 러시아문학 연구의 역사 또는 문예비평사 연구에서도 귀 기울일 만한 대목으로 보인다. 한국보다 훨씬 일찍부터 광범위하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크로포트킨과 접한 중국에서도 크로포트킨과 그의 저서들이 아나키즘 운동사와 사상사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주류였던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문예사적 접근 그리고 아나키즘과 문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에 비하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⁶³⁾ 바진(巴金)이라는 걸출하고 독보적인 아나키스트 번역가-작가의 존재가 중국 문학과 아나키즘 또는 중국 문학과 크로포트킨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절대적인 위상을 점해 왔다는 점도 새삼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문학비평사 혹은 러시아문학 연구사에 크로포트킨이 미친 영향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더 필요해 보인다.

V. 번역과 인용 사이의 문화적 통행로들 - 결론을 대신하여

이광수는 자신의 소설 『再生』(동아일보 연재, 1924~1925)과 『有情』(조선 일보 연재, 1933)에서 각각 『크로포트킨 자서전』과 『상호부조론』에 대한 언급을 끼워넣은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큰 소리를 쳤으나, 그것도 가만히 생각

62) 丁世鑫, 「克鲁泡特金和梅列日科夫斯基对中国现代陀思妥耶夫斯基研究的影响」, 『襄樊學院學報』 31卷 12期, 2010.12, p.59. 이에 따르면 그 어떤 작가들보다도 도스토예프스키 연구에서 “크로포트킨의 『러시아문학의 이상과 현실』과 메레즈코프스키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오래 영향을 미쳐왔다고 본다.

63) 李存光, 『无政府主义批判--克鲁泡特金在中国』, 江西高校出版社, 2003에서도 그러한 연구 또는 서술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여 보면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에서 얻은 크로포트킨의 뷔인 흉내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마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속에 말한 시베리아의 사슴의 떼가 꿈이 되어 나온 모양이오.”와 같은 식이었다. 조선의 최고 인기 작가가 가장 대중적인 신문연재소설에서 크로포트킨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춘원이 상호부조론에 감응하고 있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지만,⁶⁴⁾ 당대 지식계를 풍미하고 있던 크로포트킨의 대중적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분명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이는 우선 조선에서는 크로포트킨이 한 번도 제대로 번역된 적이 없다는 점, 일역 자서전이 나온 것이 1918년(三浦関造 訳)과 1920년(大杉榮 訳)이고 상호부조론이 일역된 것은 1917년(大杉榮 訳)이라는 점과 관련된다.⁶⁵⁾ 즉 『재생』과 『유정』의 인물들이 읽은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크로포트킨은 일역본임에 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작가가 상정한 독자들도 역시 이미 일역본 크로포트킨 자서전이나 상호부조론의 존재를 알거나(읽었거나) 또는 이를 통해 알게(읽게) 되리라는 것이다. 자국어 번역본이 없는 해외의 문학작품이나 서적을 인용할 경우 독자들은 생소함과 당황함을 느끼거나 작가와의 거리감이 생기게 마련인데, 비유적인 성격이 강한 저 인용들의 특성 상 그러한 낯섬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본어 번역 서적이 조건으로서 앞에 미리 놓여 있고 그 번역 언어는 괄호 안에 넣은 채 단지 인용만 해도 되는 당대의 언어 상황, 즉 김동인 식의 논법(“생각은 일본어로 하고 쓰기는 조선어로 한다”)을 빌리자면 ‘읽기는 일본어로 하고 쓰기(인용)는 조선어로 하는’ 국면의 대중적 정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⁶⁶⁾ 그러나 적어도 1930

64) 이경훈, 앞의 글, 222쪽. 이에 따르면 민족개조론 단계에서 춘원에게 ‘상호부조’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무정부주의와는 다른 민족 단결과 협동이 사상이 되었다고 본다.

65) 크로포트킨, 『革命の巷より』, 三浦関造 訳, 文昭堂, 1918. 이 책의 서문에서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임을 밝히고 있다.

크로포트킨, 『革命家の思出 : 크로포트킨自叙傳』, 大杉榮 譯, 春陽堂, 1920(1921).

ピョートル・クロフトキン, 『相互扶助論 : 進化の一要素』, 大杉榮 訳, 春陽堂, 1917(1920, 1924).

66) 당시에 문학작품에서 외국 작가들이나 그들의 문학작품이 자주 인용, 인용되는

년대 중반 “우리들은 조선말로 번역된것보다 훨씬 충실하고 양심적이고 또 새로운 것을 얼마든지 동경에서오는 간행물에서 어더볼수잇는 처지에 잇다”⁶⁷⁾든지 “이덕택(?)에 우리는 외국문학을 우리의 손으로 조선문학으로 이식할 번거러운 의무를 면할수가잇섯다.”⁶⁸⁾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표명되는 국면이 오기 전까지는, 일역본이라는 전제된 번역의 조건과 당위로서의 조선어 문 글쓰기 사이에서 양자의 관계를 고민하거나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의식적 무의식적 시도들이 행해져 왔다는 점(물론 그것은 실패의 기록이겠지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크로포트킨의 저서가 완역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었다. 언론인 성인기의 번역으로 1948년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 진화의 일요소』(대성출판사)가 처음 번역되었고, 1920년대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이을규와 아나키스트 철학자 하기락에 의해 크로포트킨의 ‘근대과학과 아나키즘’이 번역된 것도 1973년과 1985년에 이르러서였다.⁶⁹⁾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 『청년에게 고향』(홍세화 역, 2014), 『상호부조론』(2005, 2008, 2015)⁷⁰⁾, 『크로포트킨 자서전(한 혁명가의 회상)』(김유근 역, 2003), 『아나키즘』(백용식 역, 2009), 『러시아문학 오디세이(원제 『러시아 문학의 이상과 현실』)』(크로포뜨킨, 문석우 역, 2011) 등 크로포트킨들의 주요 저작들이 새로이 또는 처음으로 완역, 출간된 바 있

데에는 작가의 현학적 태도나 문화적 우월감보다도 그러한 언어 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 67) 춘사, 「문예시평4 대두된 번역운동」, 『조선중앙일보』, 1935.5.20. (동일한 글의 일부가 「번역문학시비」, 『매일신보』, 1935.8.6에 재수록)
- 68) 김동인, 「번역문학」, 『매일신보』, 1935.8.31.
- 69) 그밖에 하기락의 번역으로 『전원 공장 작업장』이, 백낙철의 번역으로 『빵의 약취』 등이 번역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로소 번역된 크로포트킨의 저작들은 출간됨과 함께 입수수색 또는 판매금지의 대상이 되었다. 하기락이 번역한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상호부조론』(형성출판사, 1985)과 1986년 발간된 크로포트킨의 자서전 『어느 혁명가의 회상』(박교인 역, 한겨레출판)은 판금되었다가 1987년에 해금되었다. (販禁 해제·司法심사 의뢰圖書목록, 경향신문, 1987.10.19 참조)
- 70) 이 책은 각각 다른 번역자에 의해 지금까지 세 번 출간되었다. 김영범 역, 『만물은 서로 돕는다 -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르네상스, 2005; 구자옥, 김희천 공역, 『상호부조 진화론』, 한국학술정보, 2008; 김훈 역, 『만물은 서로 돕는다』, 여름언덕, 2015.

다. 크로포트킨이 이 땅에 처음 소개된 이래 거의 100년 만의 일인 것이다.

‘세계문학은 서로 다른 언어권의 작품에 대한 번역이 일반화된 시대’(괴테)라는 전제는 옳지만 또한 완전히 서양 중심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나키스트를 비롯한 근대 조선의 청년들은 크로포트킨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고, 조선문학의 세계문학적 수준을 지향한 근대 조선의 작가들에게 크로포트킨은 그 주요한 매개의 하나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번역은 그러한 세계문학의 개념을 위반하는 혼란과 굴절, 착오의 기록들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근대 초기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의 저작과 사상을 ‘조선어’로 매개하기 위해 벌인 식민지적 고투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상호 관계들과 모순들을 최대한 날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앞으로 크로포트킨 사상과 우리 근대의 문화적 문학적 실천들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탐색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는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곡천(谷泉) 抄譯, 「先驅者の 하소연」, 『동아일보』, 1925.11.1.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권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8.
김동인, 「번역문학」, 『매일신보』, 1935.8.31.
김미지, 「식민지 작가 박태원의 외국문학 체험과 ‘조선어’의 발견」, 『대동문화연구』 70집, 2011.
김윤식, 「1920년대 한국아나키즘문학론비판-김화산의 경우」, 『한국학보』 28호, 33면
김택호, 『한국 근대 아나키즘문학, 낯선 저항』, 월인, 2009.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 -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2012.
박진영,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소명출판, 2013.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 운동사』, 선인, 2005.

- 박태원, 「시문잡감」, 『조선문단』, 1927.1.
- 방민호, 「김유정, 이상, 크로포트킨」, 『한국현대문학연구』 44집, 2014.
- 서동수, 「김유정 문학의 유토피아 공동체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스토리앤이미지 텔링』 9호, 2015.
- 손유경, 「아나키즘의 유산(遺産/流産)」,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2012.
- 신지연, 『글쓰기라는 거울』, 소명출판, 2007.
- 앙트완 베르만,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윤성우 이향 역, 철학과현실사, 2009.
- 오장환, 『한국아나키즘 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윤자영, 「상호부조론연구」, 『아성』, 1921.
- 이경훈, 「인체 실험과 성전 - 이광수의 『유정』, 『사랑』, 『육장기』에 대해」, 『동방학지』 117호, 2002.
- 이성태, 「크로포트킨학설연구」, 『신생활』, 1922.7.
-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지식산업사, 2001.
- 임화, 「어떤 청년의 참회」, 『문장』 13호, 1940.2.
- 임화, 「조선적 비평의 정신」, 『문학의 논리』(1940), 서음출판사, 1989.
- 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대동문화연구』 79집, 2012.
- 조남현, 「한국근대문학의 아나키즘 체험」, 『한국문화』 12호, 1991.
-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 중, 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9, 2005.
-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시와 그 성격」, 『우리말글』 21호, 2001.
- 주요한, 「이월창작별건 (3)」, 『동아일보』, 1927.2.23.
- 춘사, 「문예시평4 대두된 번역운동」, 『조선중앙일보』, 1935.5.20.
- 크로포트킨, 「青年에게 고향」, 金明鎭 譯, 『동아일보』, 1920.5.22.
- 크로포트킨, 『청년에게 고향』, 홍세화 역, 낮은산, 2014.
- 「出版警察概況 - 差押 削除 및 不許可 出版物 記事要旨」, 『朝鮮出版警察月報』 第2號, 1928.10.13.
- 「出版警察概況 - 不許可 差押 및 削除 出版物 記事要旨」, 『朝鮮出版警察月報』 第6號, 1929.2.12.
- クロボトキン, 『青年に訴ふ』, 大杉栄訳, 労働運動社, 1922.
- クロボトキン, 「青年に訴ふ」, 『正義を求める心 : 大杉栄論集』, アルス, 1921.
- クロボトキン, 『革命の巻より』, 三浦関造 訳, 文昭堂, 1918.
- 丁世鑫, 「克鲁泡特金和梅列日科夫斯基对中国现代陀思妥耶夫斯基研究的影响」,

『襄樊學院學報』 31卷 12期, 2010.12.

高一涵, 「“互助论”的大意」, 『新生活』, 第2卷第5号, 1919.9.15.

郭安仁, 「譯者的 note」, 克鲁泡特金, 『俄國文學史』, 重庆:重庆书店, 1931.

李存光, 『无政府主义批判--克鲁泡特金在中国』, 江西高校出版社, 2003.

林精华, 「苏俄文化之于二十世纪中国何以如此有魅力」, 『二十一世纪』网络版 52期, 2006.7.

克鲁泡特金, 『俄國文學史』, 韩侍桁译, 上海:北新书局, 1930.

克鲁泡特金, 『俄國文學史』, 郭安仁译, 重庆:重庆书店, 1931.

秦弓, 「五四时期俄罗斯文学翻译」, 『江苏行政学院学报』 5期, 2005.

❖ ABSTRACT

Interrelationship in the Translations of the Works of P. A. Kropotkin in East Asian Countries

Kim, Mi Ji

Russian anarchist thinker P. A. Kropotki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chool of thought, the literary field and the anarchist movement in East Asia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the translation of Kropotkin in terms of the routes and paths of translation in colonial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in Japan and China. It is a known fact that the acceptance of Kropotkin in colonial Korea is owed to pioneering translation works in Japan, but it appears that there have been various transformations and magnetization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 texts into the Korean language. Despite a disturbing censorship, the works of Kropotkin, such as “I appeal to the youth (”Aux Jeunes Gens“ in French)”, were imported, translated and distributed by various routes throughout the 1920s and there were various versions of translated Korean texts. At this point, it is noteworthy that there are works which were translated from Chinese texts about Kropotkin, such as the works of Yu Seo (柳絮),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Korean translations and Chinese original texts. Since the 1930s, the phenomenon of the appropriation of Kropotkin as a litterateur and critic rather than an anarchist thinker is particularly apparent, and this allows us to understand that Kropotkin became a major pathway to interpret Russian literature in East Asia. In colonial Korea, translations of Kropotkin were generally via Japan and China, but the process of translation also showed the struggle to accept and adapt ‘the foreign text’ into the Korean language.

Key Words

translation in 1920s, Osugi Sakae, pamphlet translation, censorship, secondhand translation, colonial translation, acceptance of Russian literature

206 비교문화연구 제43집 (2016.6.)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